광주 '개헌 공개 대토론회' 팽팽한 찬·반 공방

"현행 헌법 1인독재 방지 소임 다했다" "4년 연임이라고 책임정치 보장되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전남사회연구회가 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터에서 개최한 '개헌 공개 대토론회'에서도 뜨거운 찬·반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87년 헌법의 불완전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이 시기에 꼭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더욱이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보장하지 않는 등 완벽한 제도가 아닌데 4년 연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원인을 잘못 찾은 처방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헌정의 불완전성과 비효율성은 정치문화의 '지체' 현상과 헌법하위적 제도의 불완전성에 오히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며 "권력구조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그런 구조가 자주 바뀌게 될 때 정치체제의 안정성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은 5년 단임제의 부작용으로 ▲권력 누수와 국가정책의 단절 ▲국민심판의 부재와 책임정치의 실종 및 정계개편의 반복 ▲정책정당정치의 실종 등을 꼽은 뒤 "1인 장기집권 방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현행 헌법을 대체할 4년 연임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사회적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박 대학원장은 "만약에 임기 초에 헌법을 개정해 버리면 상당 기간 두 개의 통치규범이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헌시기로서 현 대통령의 임기말은 최적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헌은 차기정권의 몫이라는 주장은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로 보는 격이고 '우편물을 받을 때 배달부가 맘에 안 든다고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논리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중립' 입장으로 초대된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개헌 문제가 제기됐으며 최근 학계에서도 개헌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등 개헌문제가 하루 아침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헌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대통령의 제안이 부정되는 환경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 때문에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하자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개헌에 대해 정치적 저울질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나간채 전남대 교수는 "개헌의 내용·시기 논의에 앞서 누가 제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말이 있다"며 "개헌 제안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 의해 개헌논의가 차단된다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나는 중도"

여수 방문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이념성향과 관련, "나는 중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 초청 특강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박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년3개월동안 대표로서 당을 대신해서 국민과 국익의 입장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책과 노선을 정해왔다. 그게 중도다"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자신들을 지지하고 표를 던져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은 지난달 16일 고 건 전 총리의 대권도전 포기 선언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대선주자 '공백상태'가 된 이 지역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현섭 여수시장으로부터 2012 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해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위 특강에서는 "서·남·동해안 연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계획의 중심에 있는 여수가 박람회까지 유치한다면 남해안 지역 전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6일 여수를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남해화학 공장을 찾아 '중화학 시대의 기수'란 글귀가 쓰인 휘호탑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당 운영위원장 선거 마무리

광주 대폭 교체…전남은 전임·현역 국회의원 재선출

열린우리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 결과, 전남지역에서는 대부분 전임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에 재선출됐다. 하지만 광주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이 2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고 동구를 제외한 모든 위원장이 교체됐다.

전남도당(위원장 유선호) 산하 13개 당원협의회의 경우 5일 현재 11개 선거구에서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및 대의원 선거를 마쳤다. 목포와 강진·완도는 공고 누락 등 선거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돼 해당 선관위가 심의 중이다.

이번 제 3기 지역당원협의회 선거는 당헌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치러졌으며 이에 따라 당원협이 통합된 나주·화순(정을진), 담양·장성·곡성(이강선), 고흥·보성(정동식) 등 3개만 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광주의 경우 동구는 나기인 현 위원장, 서구갑은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 서구을은 오종환 전 서구의원, 남구는 이창호 전 남구의회 의장, 북구갑은 이판선 재생자원 대표, 북구을은 진귀수 전 전국어린이연합회 회장, 광산구는 허문수 전 화니 기획실장 등이 각각 선출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정동영 '신변위협' 수사 의뢰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6일 "신원불상의 괴청년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측근들은 정 전 의장이 이날 오전 대구 방문을 위해 서울 홍은동 자택 주차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서울역에 도착할 무렵까지 '나라사랑'이란 글씨가 붙여진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가 그의 차량을 따라 붙었다고 주장했다.

승용차에 탄 괴청년들은 정 전 의장의 차량에 바짝 붙어 위협을 가했으며 차창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동영은 사죄하고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심한 욕설까지 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외교 안보 구상 'MB 독트린' 발표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교·안보정책 구상을 밝혔다.

'한국외교의 창조적 재건'이라는 목표로 내놓은 자칭 '엠비(MB) 독트린'은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 지금까지 '경제 지도자' 이미지에서 벗어나 외교·안보 분야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전 시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른바 '비핵·개방 3천(千) 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할 경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을 위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번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핵 폐기와 개방 없이는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런 내용의 대북 개방정책을 비롯해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아시아외교 확대 ▲국제사회 기여 확대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코리아' 지향 등을 '한국 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으로 내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